

“감사생활이 체질화 되어야”

■ 이종윤 원로목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던 이가 소위 성공한 사례는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세계 인명록에 기록된 이들의 80%가 먼 단위 이하에서 즉 농어촌 또는 광산촌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시성(詩聖) 바이런은 발 기형을 갖고 산이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고 악성(樂聖) 베토벤은 청각장애 환자였고 모차르트는 폐결핵 환자였다. 2차 대전의 영웅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헬렌켈러 여사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환자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노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느브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글자를 풀어 당시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된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이들로 인해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고난의 날에 감사한 다니엘

다니엘은 소원성취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상대적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사람이 항상 감사하기란 쉽지 않지만 마음을 겸손히 먹고 자신의 위치를 낮게 잡으면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겸손해서 손해 볼 일은 없으니 그 자체로 이미 덕을 보겠으나 겸손함으로 더 감사할 수 있어 금상첨화 격이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우리는 항상 찾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감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돈 버는 방법이나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찾는 일에는 혈안이나 그것들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감사거리는 코앞에 두고도 불평만 벌컥 낸다면 아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기도하면 감사가 터진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그는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므로 감사할 수 있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라. 현재 나의 처지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이는 지금의 작은 고통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노예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다. 옳은 모든 것을 빼앗겼으나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께 범치치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감사

금년에 37년 만에 대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이가 내년을 걱정하면 감사가 없어진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출세는 못해도 의롭게 살고, 가진 것은 적으나 진실하게 살며, 성결을 장수보다 더 큰 복으로 여기고 부귀영화보다 의로운 고난과 죽음을 더 복된 것으로 여길 때 감사가 온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다니엘은 사자의 입도 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두려움 대신 감사했다. 그는 감사생활이 체질화되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62호] 2013년 4월 13일 발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서울교회 회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복된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함께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에 방역대책이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번 주에는 유·초등부(101호), 중·고등부(501호)가 대면예배로 드리며, 새벽기도회와 타 교육부서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502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근 선 교 사 권경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진경·황경혜(말레이),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함미수(일본), 김낙현·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토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임(팔라우), 이재용·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주인과 계산할 날이 온다!”

■ 마 25:14-30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곧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천국의 주인과의 만남입니다. 성령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믿음보다 행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과 만나 셈을 하게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환두자의 수고는 정당하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의 따스한 환영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기회를 놓치고 천후의 한을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음부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육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선택 행실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믿음의 열매를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그 행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투자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할 정당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엔 종이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받은 것을 사용했고 사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16월에 있는 대로 바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이익을 남기기까지 그들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든 적다고 또는 많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여 주인과 셈할 그날에 이문을 배나 남겼다고 말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2.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에 투자하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투자하려면 첫째, 내게 맡겨주신 주인을 위해서 하는 투자여야 합니다. 칭찬 들으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두 유형의 사람은 하나같이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인에게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떨어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과 셈하게 되는 날 땅에 감췄던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한 투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고, 반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움츠리지 않았고 주인의 유익에 보탬이 되는 일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 자체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악하고 게른 중(26절), 무익한 중(30절)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선택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일에 투자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주인을 위한 투자이고 선택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을 위한 투자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키우는 것과 전리를 심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흔히 똑똑하고 잘난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그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물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가기는 줄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가기는 줄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19-21).

맺는 말
성도는 투기는 반드시 피하되 투자의 수고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승부를 걸지 말고 이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7-10).

지난 주 서장원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이관규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마 18: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6(어린이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69(44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말 2:14-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라”... 서정원 목사
 * 찬 송 Hymn559(30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골 3:15 인 도 자
 찬 송 315(512) 다 함 께
 기 도 김은석 집사
 성 경 엡 1:4-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예정(豫定)과 하나님의 주권” ... 설 교 자
 * 찬 송 90(88)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기 도 I부: 정경자 권사 II부: 백승경 권사
 성 경 마 3: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회개와 열매”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교회소식

모임

1. 정기당회 / 5월5일(수) 오후 1시 402호

알림

1.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12. 이번주 심방 일정
 1-6, 5-3~4, 7-4, 13-6~7, 15-1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230명	352명	1,582명	357명	1,314명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언약의 자손된 저들 위에 대리를 적시운 이슬 같이 맑고도 신선한 은총 퍼사 새 영을 날마다 부으소서

주님

천국의 자녀된 저들 위에 하늘 나는 독수리같이 희망과 권능의 은사 주사 광명의 새 시대 맡기소서

주님

우리집 보배된 저들 위에 하늘 별 바다 모래 반짝이듯 평강 와 메시아 복 내리사 온세상 빛되게 하옵소서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박수강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 2:15)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